

## 패션리더쉽과 自信感과의 相關研究

조필교\*·구은영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Leadership and Self-Confidence

Pill Gyo Cho\*. Eun Young KOO

\*Dept. of Home Economics, Teacher's college,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1986. 5. 30 접수)

####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leadership and self-confidence. Self-confidence was measured with Kim's Personality Scale, and fashion leadership was assessed with Hirschman and Adcock's questionnaire.

Thes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12 unmarried women in Taegu.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F-test, and Scheffé test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high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opinion leadership and fashion innovativeness.
2.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leadership and self-confidence.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confidence between innovative communicators and non-innovative communicators.

#### I. 緒論

새로운 아이디어나 製品이 受容되어 社會에 傳播되는 過程은 오랫동안 社會科學 領域에서 研究者들의 關係의 對象이 되어 왔다. 특히 衣服流行에 있어서는 새로운 衣服 스타일이 빈번히 紹介됨으로써 流行에의 關心이 높아가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패션 리더쉽에 관한 研究도 高調되고 있으며 또한 衣服流行의 採擇·擴散過程에서의 先導者와 오피니언 리이더의 諸特性들을 밝히려는 많은 研究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性格特

과 오피니언 리더쉽간의 關係를 試한 研究는 少數이고 그 결과들도 서로 相異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Pasnak 와 Ayres<sup>1)</sup>는 패션 先導者는 自己受容程度가 높다고 했으며, 또한 Summers<sup>2)</sup>, Reynolds 와 Darden<sup>3)</sup>은 일반적인 自信感 및 性格特性과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 간에 유의한 關係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Baumgarten<sup>4)</sup>, Robertson 와 Myers 등<sup>5)</sup>은 일반적인 性格特性과 패션 리더쉽간에 유의한 關係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國內에서도 김민자, 김정호<sup>6)</sup>, 노경미<sup>7)</sup>, 김영숙<sup>8)</sup>, 최선흥 등<sup>9)</sup>이 패션리더쉽과 몇 가지 變因들과의 關係를 조사·보고하였지만, 性格特性과 패션 리더쉽

과의 關係를 調査한 研究는 미진한 實情에 있다. 이에 本研究에서는 하나의 퍼스널리티 變因으로서 自信感 및 그下位特性과 패션 리더쉽과의 關係를 詳히으로써 패션 採擇·擴散過程에서의 패션 先導者와 오피니언 리이더들의 보다 明確한 퍼스널리티 特性을 調査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복식산업 종사자들에게 이들 패션 리이더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보다 個性을 살린 合理的인 衣服生活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II. 理論的 背景

### 1. 패션의 採擇·擴散에 관한 一般的 理論

새로운 패션 스타일이 紹介되어, 社會에 傳播되는 과정을 설명한 理論으로서 下向傳播理論(Trickle Down Theory), 水平傳播理論(Trickle Across Theory), 上向傳播理論(Upward Flow Theory)이 提示되고 있다. 이 세 가지 傳播理論은 한 社會內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採擇過程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의 共通된 見解를 가지고 있다. 즉 패션 受容의 움직임에는 패션 리이더와 추종자가 있다는 事實과 各 理論에서 패션 리이더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패션을 먼저 採擇하고, 다른 이들에게 影響을 끼치면서 패션을 主導해 나간다고 본다는 點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境遇,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진 것을 選擇하기가 더욱 쉽다. 그래서 Troxell은 패션을 主導해 나가는 先導者의 存在가 要求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Greenwood<sup>10)</sup>도 패션 週期의 첫 段階를 革新의 段階로 보고 先導者에 의해 새로운 패션이 主導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Rogers<sup>11)</sup>는 革新의 採擇과 擴散에 관한 理論에서 採擇리더쉽을 先導力과 오피니언 리더쉽의 두 가지 次元으로 定義하고, 한 個人內에서의 先導力과 오피니언 리더쉽 特性的 重複을 지적하였다. 즉 이들 特性的 重複은 傳統志向의 社會에서 보다도 變化志向의 社會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내었다. Darden과 Reynold<sup>9)</sup>, Schrank 와 Gilmore<sup>12)</sup>, Baumgarten<sup>14)</sup>, Kim과 Schrank<sup>13)</sup>, 김민자, 김정호등<sup>6)</sup>도 또한 한 個人內의 패션 先導者와 오피니언 리이더가 重複되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 先導者와 오피니언 리이더의 役割을 함께 하는 이들 二重役割者를 Schrank 와 Gilmore는 Dual Leader로, Baumgarten은 Innovative Com-

unicator라 칭하였다.

### 2. 自信感과 衣服 行動

Cohen<sup>14)</sup>은 自信感을 個個人이 自身의 여러가지 場面에 對處하는 價值觀으로 定義했고, Coopersmith는 한 個個人이 自己自身을 有能하고 重要하며, 成功의이고 價值 있다고 믿는 程度로 自信感을 定義하였다. 또 김기석<sup>15)</sup>은 自信感을 劣等感과 對立되는 特性으로서 여러가지 生活場面에서 自身의 모든 生活態度에 대해 確信을 가지는 性格特性이라 定義하고 社交性, 支配性, 責任性, 情緒的 安定性을 그 下位特性으로 說明하여 이들 特성이 높을수록 自信感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自信感과 個個人이 着用하는 衣服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먼저 Alexander<sup>16)</sup>는 青年期에 있어서 衣服의 가장 重要한 機能은 自身에게 어울리는 魅力의 衣服이 그들에게 附與하는 自信感과 安全感이라고 했다. 한편 Ryan<sup>17)</sup>은 그의 研究에서 自信感과 自我尊重도에서 높은 點數를 얻은 사람들이 그들自身을 더욱 衣服을 잘 입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또한 優越性과 衣服을 잘 입는데 대한 높은 자기 평가와 正의 關係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Humprey 와 Klaasen과 Creekmore<sup>18)</sup>에 의하면, 自我尊重感이 높은 靑少年들이 모두 그들自身에게 關心을 끌고자 衣服을 使用하며, 또한 衣服에 더욱 興味을 갖고 있었다.

한편 Pearson<sup>19)</sup>은 비교적 넓은 範圍의 色彩選好度를 가진 被驗者들이 情緒的으로 아주 均衡잡힌 狀態에 있다는 事實을 밝혔다. 이인자<sup>20)</sup>는 衣服에 있어서 個性的의 것을 특히 強調하는 사람은 衡動의이며 果斷性이 있다고 하였다. Darden<sup>21)</sup>은 社會性은 衣服의 同調性과, 支配性 및 情緒的 安定性은 衣服의 個性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說明하였다. 박광희, 강혜원<sup>22)</sup>은 支配性이 높은 집단이 더욱 個性的인 衣服을 重要視하며,自身的 衣服에 대한 自己評價도 높음을 밝혔다.

### 3. 패션리이더의 特性에 관한 先行研究

어떤 사람이 流行 先導者인가? 오피니언 리이더인가? 또한 그들은 어떠한 特性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많은 研究者들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패션 리이더를 確認하려고 試圖해 왔다.

먼저 Pogelato 와 Wall<sup>23)</sup>은 오피니언 리이더가 追從者들보다 패션 採擇過程에서 더욱 多은 情報根源을 더욱 頻繁하게 使用했음을 報告하였다. Summers<sup>24)</sup>, Baumgarten<sup>14)</sup>도 또한 리이더들이 무관심자들보다 패

선 雜誌와 같은 패션과 關聯된 전파매체에 더 많이 露出되어 있는 傾向이 있음을 밝혔다. Hirschman과 Adcock<sup>24)</sup>의 研究에 의하면, 先導者와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二重役割者는 더욱 錢은층이고, 여러가지 사회活動에 더 많이 參與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asnak 와 Ayres<sup>15)</sup>는 그들의 研究에서, 先導者들은 自身을 위해 웃임는 것을 즐긴다고 밝혔으며, 또한 이들은 自己受容程度가 높고, 過去나 未來보다도 現在志向의 特性을 갖고 있다고 했다. Summers<sup>25)</sup>의 조사에 의하면 오피니언 리더는 競爭的·誇示의이고 自信感이 있으며 社交의이고 變化에 敏感한 特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roles 와 King 도 패션리더 혹은 先導者들은 競爭心, 自信感의 特性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Baumgarten<sup>4)</sup>에 의하면 二重役割者들은 外貌에 대한 關心이나 패션에 대한 知識이 많으며, 더욱 衡動의이고 自己誇示의인 特性을 갖고 있었다.

또한 Kim 와 Schrank<sup>13)</sup>는 새로운 패션을 初期에 採擇하는 反應者들이 낮게 採擇하는 사람들보다 變化에 더욱 衡定의인 態度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노경미<sup>26)</sup>도 變化志向의 個人的特性이 패션 리더쉽에 많은 影響을 끼친다고 밝혔다. 김민자, 김정호<sup>6)</sup>는 패션 리더쉽을 패션先導者, 오피니언 리더, 二重役割者로 나눌 때, 二重役割者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衣服에 대한 關心이나 興味가 가장 높았음을 밝혔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들 集團의 模範과 남에게 패션에 대한 情報나 忠告를 해주기 위하여 패션 先導者層보다 더욱 패션에 關心이 높음을 밝혔다.

### III. 研究의 假說

<가설 I>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과 패션 先導力간에는 有意한 關係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 패션 先導力과 自信感 特性간에는 有意한 關係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패션리더쉽의 2개 下位集團에 있어서 自信感 및 그 下位特性(支配性, 社交性, 情緒的 安定性)에는 有意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 IV. 研究方法 및 節次

#### 1. 測定道具

##### (1) 패션 리더쉽의 測定

Hirschman 와 Adcock<sup>24)</sup>이 使用한 問項을 修正, 補完하여 使用하였으며, 道具는 새로운 衣服 패션을 더

욱 빨리 受容하고 着用하는 程度를 나타내는 패션 先導力을 測定하는 3問項과 한 個人이 새로운 衣服 패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影響을 끼치는 程度를 묻는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 測定 3問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5段階 評定法으로 評價하였다.

##### (2) 自信感 및 그 下位特性의 測定

김기석<sup>16)</sup>의 一般性格검사지를 使用하였다. 검사지는 社交性, 支配性, 責任性, 情緒的 安定性을 각각 나타내는 18問項씩 全體 72問項으로 되어 있으며, 自信感 測定 點數는 社交性, 支配性, 責任性, 情緒的 安定性에서 얻은 點數를 總合한 點數로 하였다.

##### (3) 2개의 下位集團

中央值를 이용한 Schrank의 分類方法을 使用하였다. 즉 패션 先導力과 오피니언 리더쉽 둘다에서 높은 點數를 얻은 二重役割者 集團과 패션 先導力은 높으나 오피니언 리더쉽은 낮은 패션 先導者 集團, 반면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은 높으나 先導力은 낮은 패션 오피니언 리더 集團, 마지막으로 패션 先導力과 오피니언 리더쉽 點數가 모두 낮은 無關心者 集團으로 分類되었다.

### 2. 調查對象 및 資料蒐集

本 研究의 調査對象은 大邱市內에 거주하는 여대생 및 痴장여성을 포함한 412名의 20代 未婚女性이었고豫備調查를 거쳐 修定·補完된 設問紙를 200여명의 여성이 많이 출입하는 대구시내 소재 2개 다방과 3개 양재 학원을 임의로 선정, 미리 훈련된 조사원을 배치하여 1985年 8月에서 9月에 걸쳐 調査를 施行하였다. 미비한 資料를 除外하고 總 412部가 統計處理에 使用되었다.

### 3. 資料處理

패션 先導力,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 自信感 및 그 下位特性의 變因에 대해 각각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算出하였고, 變因들간의 相關關係는 Pearson의 積率相關 計數로써 檢證하였으며(가설 I, 가설 II), 集團간의 差異는 F檢證 및 Scheffé의 事後比較(가설 III)를 行하였다. SPSS Package를 利用하였다.

### V. 研究 結果 및 論議

#### 1. 패션 先導力과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과의 關係

<가설 I>을 檢證하기 위한 Pearson의 機率상관계수를 算出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에 의하면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과 패션 先導

〈표 1〉 패션 선도력, 오피니언 리더쉽과 자신감 및 그 하위특성간의 상관관계

	선도력	오피니언 리더쉽
오피니언 리더쉽	.48***	
자신감	.10*	.21***
사교성	.25***	.21***
지배성	.19***	.28***
책임성	-.03	.06
정서적 안정성	-.08	.04

\*\*\*p<.0001      \*p<.05

力 사이에는 유의도 수준  $p<0.0001(r=.48)$ 로 높은  
正的 相關關係가 있었다.

이結果는 衣服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과 先導力 사이에는 強한 관계성이 있음을 밝힌, Schrank<sup>25)</sup>, Baumgarten<sup>4)</sup>, Myers 와 Robertson<sup>26)</sup>, Kim 와 Schrank<sup>13)</sup>, 김민자, 김정호<sup>6)</sup>, 노경미<sup>7)</sup>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과 두관심자들보다 혁신적인 패션을 더욱 쉽게 선택한다는 Varian<sup>27)</sup>의 연구 결과를 支持해 준다.

따라서 〈가설 I〉은 수용되었다.

## 2. 패션 先導力,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과 自信感 特性과의 關係

〈가설 II〉를 檢證하기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산출 결과에 의하면(표 1) 오피니언 리더쉽과 自信感, 先導力과 自信感 사이에 각각 유의도수준  $p<.0001(r=.21)$ 과  $p<.05(r=.10)$ 로 正的 相關關係를 나타내었다. 이는 自信感이 오피니언 리더쉽과 正的 관계가 있다고 밝힌 Summers<sup>28)</sup>의 研究結果를 뒷받침해 주며, 또한一般的의 自信感과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 사이에有意한 關係가 있다고 한 Reynolds 와 Darden<sup>9)</sup>의 研究結果와 一致한다.

또한 패션 先導力, 오피니언 리더쉽과 自信感 下位特性과의 關係를 보면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과 社交性 사이에는 유의도수준  $p<.0001(r=.21)$ , 그리고 패션 先導力와 社交性 사이에는 유의도수준  $p<.0001(r=.25)$ 로 높은 正的 相關關係가 있었으며, 이는 Summers<sup>28)</sup>의 研究에서 社會參與度와 社交性이 오피니언 리더쉽과 強한 正的 關係가 있었음과 一致한다. 또한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은 社會的으로 活動의이며 社交의이고 한 Varian<sup>27)</sup>과 Neukom<sup>28)</sup>의 結果와도 같은 경향이다.

〈표 2〉 패션리더쉽 하위 집단별 자신감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 ratio
Between	1286.39	3	428.79	3,581**
Within	48858.24	408	119.25	
Total	50144.63	411		

\*\*p<.01

〈표 3〉 패션리더쉽 하위집단별 자신감 점수 평균의 개별비교(Scheffé's test)

Contrast	$\hat{\psi}/\hat{\sigma}\hat{\psi}$
$\mu G_1 \sim \mu G_2$	2.22/1.947=1.14
$\mu G_1 \sim \mu G_3$	-1.23/1.564=-0.79
$\mu G_1 \sim \mu G_4$	2.71/1.597=1.70
$\mu G_2 \sim \mu G_3$	-3.45/1.709=2.02
$\mu G_2 \sim \mu G_4$	0.49/1.74=0.28
$\mu G_3 \sim \mu G_4$	3.94/1.297=3.04*

\* $\alpha<0.05$

한편, 오피니언 리더쉽과 支配性 사이에는  $p<.0001(r=.28)$ 로 높은 正的 相關關係를 나타내었으며, 先導力과 支配性 사이에도 유의도수준  $p<.0001(r=.19)$ 로 正的 相關을 보였다.

또한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 先導力과 情緒的 安定性 간의 關係는 衣服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과 情緒的 安定性 간의 正의인 關係를 밝힌 Summers<sup>29)</sup>의 研究 結果와는 달리, 오피니언 리더쉽, 先導力 어느 것도 정서적 안정성과 有意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相反되는 結果는 研究對象의 差異(Summers : 主婦本研究 : 20代 未婚女性)와 文化的인 差異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설 II〉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 3. 패션 리더쉽의 네개 下位集團간의 自信感 및 그 下位特性의 比較

### (1)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別 自信感의 比較

패션 리더쉽 하위 집단별 自信感을 变量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2),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間의 自信感에는 有意味한 差異가 있었으므로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集團間 自信感 點數의 평균을 개별比較한 結果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二重役割者 集團( $G_3$ )이 自信感 점수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이 先導者 集團( $G_1$ )과 오피니언 리더 集團( $G_2$ )이고, 無關心者 集團( $G_4$ )이 가장

〈표 4〉 패션 리더쉽 하위집단별 사교성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 ratio
Between	246.35	3	82.12	8.521***
Within	3932.13	408	9.64	
Total	4178.48	411		

\*\*\*p&lt;.0001

〈표 5〉 패션 리더쉽 하위집단별 사교성 점수 평균의 개별비교(Scheffé's tests)

Contrast	$\hat{\phi}/\hat{\sigma}\hat{\phi}$
$\mu G_1 \sim \mu G_2$	-0.04/0.554 = -0.07
$\mu G_1 \sim \mu G_3$	-1.13/0.445 = -2.54
$\mu G_1 \sim \mu G_4$	0.72/0.454 = 1.59
$\mu G_2 \sim \mu G_3$	-1.09/0.486 = -2.24
$\mu G_2 \sim \mu G_4$	0.76/0.495 = 1.54
$\mu G_3 \sim \mu G_4$	1.85/0.369 = 5.01*

\* $\alpha<0.05$ 

〈표 6〉 패션 리더쉽 하위집단별 지배성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 ratio
Between	400.35	3	133.45	7.17***
Within	7,594.31	408	18.61	
Total	7,994.66	411		

\*\*\*p&lt;.0001

낮게 나타났으며,  $r=.05$ 수준에서 二重役割者와 無關心者集團간에 有意味한 差異가 있었다.

이는 패션 오피니언 리이더들이 有意的으로 自信感이 높았음을 밝힌 Summers<sup>2)</sup>의 研究와 부분적으로一致한다. 그는 또한自信感은 패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토픽영역에서 오피니언 리더쉽의 特性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忠告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나自身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스스로自信感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2)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別自信感의 下位特性 比較

## ①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別 社交性의 比較

〈표 4〉에 의하면, 네개의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間社交性에 있어서 有意味한 差異가 있었으므로, scheffe's test로 集團間比較를 행한結果는 다음과 같다(표 5).

〈표 5〉에 의하면 集團別社交性點數比較에서 二重役割者와 無關心者集團間에만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

〈표 7〉 패션 리더쉽 하위집단별 지배성 점수 평균의 개별비교(Scheffé's test)

Contrast	$\hat{\phi}/\hat{\sigma}\hat{\phi}$
$\mu G_1 \sim \mu G_2$	0.5/0.769 = 0.65
$\mu G_1 \sim \mu G_3$	-1.32/0.618 = -2.14
$\mu G_1 \sim \mu G_4$	0.96/0.631 = 1.52
$\mu G_2 \sim \mu G_3$	-1.82/0.675 = -2.70
$\mu G_2 \sim \mu G_4$	0.46/0.688 = 0.67
$\mu G_3 \sim \mu G_4$	2.28/0.512 = 4.45*

\* $\alpha<0.05$ 

〈표 8〉 패션 리더쉽 하위집단별 경서적 안정성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 ratio
Between	109.71	3	36.57	1.749
Within	8531.59	408	20.91	
Total	8641.30	411		

다. 이結果는 패션의擴散過程에서 二重役割者들의特性을 調査한 Baumgarten<sup>4)</sup>의結果와一致한다. 즉二重役割者들은 더욱 社交의이고 社會的으로活動的인 사람들이며自身의外貌에 더욱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오피니언 리이더, 先導者, 無關心者集團보다도 二重役割者들이 대체로 폭넓은 社會的活動에 參與한다고 報告한 Hirschman과 Adcock<sup>24)</sup>의研究結果와 국내 김영숙의論文과도一致한다.

## ②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別支配性의 比較

〈표 6〉에 의하면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別支配性特牲은 有意水準  $p<.0001$ 에서 有意味한 差異가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이(표 7),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集團別支配性點數평균을個別比較하였다.

〈표 7〉에 의하면支配性點數比較에 있어서 二重役割者와 無關心者, 그리고 二重役割者와 오피니언 리이더 사이에 有意味한 差異를 나타내었다. 즉二重役割者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自信感을 가지고 獨自의인決定과行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別情緒的安定性의 比較

〈표 8〉에 의하면 패션 리더쉽 下位集團間의 情緒的安定性에는 有意味한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가설 Ⅲ〉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 IV. 要約 및 結論

1. 패션 리더쉽은 自信感 및 그 下位特性인 支配性, 社交性과 높은 正的의 相關係가 있었다. 즉 自信感이 클수록 패션 리더쉽이 強한 傾向이 있었으며, 또한 支配性이 強할수록 패션 리더쉽이 强한 傾向이 있었으나, 패션 리더쉽은 情緒的 安定性과는 有意味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 패션 리더쉽 네개의 下位集團—先導者, 오피니언 리더, 二重役割者, 無關心者—간에 自信感特性에 있어서 有意味한 差異가 있었다. 즉 二重役割者들은 社會生活에서 自身의 行動이나 態度에 대해 自信感을 가지며, 無關心者들은 自身에 대한 確信感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二重役割者集團과 無關心者集團間에는 社交性에 있어서 有意味한 差異가 있었으며, 二重役割者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아주 社交的의 特性을 가지고 있었다.

(3) 二重役割者集團은 無關心者集團에 비해 支配性이 有意味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自信感을 가지며 自己 主張을 내세우고, 獨自的의 決定과 行動을 할 수 있는 반면, 無關心者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忠告에 쉽게 이끌리는 特性을 나타냈다.

이상의 結果로 볼 때, 自信感 및 그 下位特性인 支配性, 社交性이 패션 오피니언 리더쉽, 先導力과 有意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피니언 리더쉽, 先導力, 自信感과의 關係에서 오피니언 리더쉽과 自信感과의 상관( $p < .0001, r = .21$ )이 先導力과 自信感과의 상관( $p < .05, r = .10$ )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패션 先導力은 새로운 衣服 패션을 더욱 빨리 受容하고 着用하는 特性을 나타내는 반면, 오피니언 리더쉽은 한個人이 새로운 衣服패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影響을 끼치는 特性을 意味하므로 여러가지 生活場面에서 自己自身的 모든 生活態度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特性인 自信感과 오피니언 리더쉽이 더욱 상관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事實은 Summers<sup>2)</sup>에 의해서 지지된다. 즉 그는 패션뿐 아니라 모든 토픽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忠告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自身에 대해서나 自身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스스로 自信感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自信感 下位特性인 社交性, 支配性이 自信感보다도 先導力, 오피니언 리더쉽과 더욱 상관이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自信感의 다른 下位特性인 責任性, 情緒的 安定性은 패션 리더쉽과 거의 상관이 없었으므로, 이를 總合한 特性인 自信感이 패션 리더쉽과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研究에서는 더욱 細分된 自信感 測定道具를 開發하여 自信感과 衣服과의 關係규명을 위한 심층研究가 한층 要請된다.

#### 參 考 文 獻

- Mary Frances Drake Pasnak and Ruth W. Ayres, "Clothing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novators", *Journal of Home Economics*, 61 (9), 698-702, (1969)
- Summers, J.O., "The Identity of Women's Clothing Fashion Opinion Leade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7, 178-185, (1970)
- Reynolds, F.D. and William R. Darden, "Mutually Adaptive Effect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8, 449-454, (1971)
- Baumgarten, S.A., "Innovative Communicator in the Diffusion Proces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2, 12-18, (1975)
- Myers, James H. and Thomas S. Robertson, "Personality Correlates of Opinion Leadership and Innovative Buying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6, 164-168, (1969)
- 김민자, 김정호 : "패션 리더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1), 11-20, (1983)
- 노경미 : "청년기 여성에 있어서 변화지향 태도와 사회경제 수준에 따른 패션 리더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영숙 : "기혼녀의 사회참여도, 대중전달 매체 이용도,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fashion leadership",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최선형 : "유행선도자의 특성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Greenwood, K.M. and Mary Fox Murphy,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55, (1978)
- Rogers, Everett M., *Diffusion of Innov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2)

- 12) Schrank, H. and Gilmore, D., "Correlates of Fashion Leadership; Implication for Fashion Process Theory", *Sociological Quarterly*, 14, 534-543, (1973)
- 13) Kim, Minja and Holly L. Schrank, "Fashion Leadership A two -Culture Study, Part I; Fashion Leadership among Korean College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3), 227-234, (1982)
- 14) Brian Sternthal and C. Samuel Craig, Consumer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3, (1982)
- 15) 김기석 : 일반성격검사, 서울·코리안 테스팅센터, (1970)
- 16) Ryan, M.S., Clothing;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 hart and Winston, Inc., 286, (1966)
- 17) Ryan, M.S., 300, (1966)
- 18) Carolyn Humphrey, Mary Klaasen, and Anna M. Creekmore,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6-250, (1971)
- 19) Pearson, L.H., "Teenager's Preferences in Clothes", *Journal of Home Economics*, 42, 801-802, (1950)
- 20) 이인자 :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 75-82, (1976)
- 21)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Interest for a Group of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en Ages 18 to 3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 22) 박광희, 강혜원 :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13-19, (1984)
- 23) Rosemary Polegato and Marjorie Wall, "Information Seeking by Fashion Opinion Leaders and Followe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5), 327-338, (1980)
- 24) Hirschman, E.C. and William O. Adcock, "An Examination of Innovative Communicators, Opinion Leaders and Innovators for Men's Fashion Apparel",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08-334, (1978)
- 25) Schrank, H.L., "Fashion Innovativeness and Fashion Opinion Leadership as Related to Social Insecurity, Attitudes Toward Conformity, Clothing Interest and Socioeconomic Level",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59, (1970)
- 26) Myers, J.H. and Thomas S. Robertson, "Dimensions of Opinion Leadership",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9, 41-46, (1977)
- 27) Varian, Marta Rose, "The Fashion Adoption Process in a Small Town Society; A Study of Consumer's Use of Selected Sources of Fashion Inform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30, (1972)
- 28) Neukom, N.J., "A Profile of Fashion Leaders in Fargo-Moorhead: Clothing Attitudes and Clothing Values",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49, (1977)